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홍순명 녹취록
<장밋빛 인생 La vie en rose>

일시 : 2017년 3월 18일 (토) 오후 4:00

장소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작가 : 홍순명

홍순명 : 저는 <사이드 스케이프> 시리즈로 회화 전시를 해왔습니다. 그림을 시작한 것이 2004년인데 그 이전에는 대학 수업시간에 서양화를 해보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한지는 10년 조금 넘었어요. 40중반 이후부터 시작 한 거죠. 다양한 것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 계기는 '세월호 사건' 때문이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후, 혼자 팽목항에 가서 하루를 보냈어요. 미술과는 관계없이 '세상이 뭐 이렇지'하는 생각을 하며 독에 앉아있었어요. 초창기에는 거기가 굉장히 복잡했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했어요. 경찰, 피해자 유가족들, 그 사람들을 달랜답시고 방문한 관람객들, 여러 종류의 종교인들의 천막들이 쪽 있었고, 이들이 뒤범벅이 되어서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옆으로 가면 서망 해수욕장이라고 폐쇄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쓰레기들만 많고 아무도 없는 그 곳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고 목포로 가서 자고 다음 날 다시 돌아와서 앉아있고, 그러고 나서 또 갔어요. 그렇게 그 장소에 다섯 번을 갔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 문득 '도대체 이런 사건은 무엇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은 무엇일까?' 하며 혼자 중얼거리다가 주변의 쓰레기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무언가를 봤겠지? 뭔가를 알고 있지?' 하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이들을 타임캡슐에 넣어, 보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차에 가득 실어서 가지고 왔어요. 나뭇가지, 돌맹이, 조개껍데기, 어촌에서 쓰다 버려진 물건들 등등을 집에 가지고 온 후, 막연하게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트럭을 아예 렌트를 해서 가지고 와서 가득 실고 오고 또 트럭에 가득 실고 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오브제를 거기서 주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새 이들을 묶어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행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때 사용했던 것이 부엌에서 쓰는 랩입니다. 가장 싸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것을 사용했어요. 재밌는 것이 투명한 것을 계속 감으니까 겹쳐진 표면이 메탈 같은 쇠덩이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제가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서 스쿠버다이빙을 했었는데, 나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의 공기가 올라와요. 그 공기가 완전히 쇠덩이 같은 느낌이 나요. 이것을 감는 순간 갑자기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나 혼자 울컥해지면서 이 물건하나하나가 물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숨결과 오버랩이 되며 '아 애들을 위해 무조건 만들어야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70~80개 만들었을 당시 만들 때는 작품과 아무 관련이 없이 아이들을 위한 살풀이 같은 것이었어요. 50대인 내가 이 사회의 책임자인 세대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죄책감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런 사건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주

워온 오브제들을 감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예술가의 행위로서 계속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작업실에 놀러 와서 '이거 너무 예쁘다'하면서 작업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10년간 계속해서 그림만 그리던 세계를 벗어나는 상황이 된 거죠. 작은 물건들은 랩을 감아서 조각을 만들었고, 2-3m 되는 것들은 랩을 감은 위로 큰 캔버스 천을 씌우고 그 표면에 팽목항 사건을 그림으로 그려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림 외에 다른 것을 하기 시작하면서 옛날에 했던 다른 것들이 떠오르면서 입체작업도 하고, 다시 영상도 해보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오던 <사이드 스케이프>도 지속되겠지만, 이것도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했어요. 제가 윌링앤딜링에서 전시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저에게는 김인선 대표가 나보다 조금 후세대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과 하는 교류 같은 것들이 좀 절실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교류하던 사람들 말고 앞으로 미술계의 중심이 될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김인선 대표였던 거죠. 올해 3월 전시가 정해지고 서로 전시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것을 그대로 전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떤 전시를 할 것인지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의 관점들은 무엇일까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그 얘기를 나누다가 만들어진 것이 작업들입니다. '장밋빛 인생 (La vie en rose)'은 에디트 피아프라는 유명한 가수의 노래 제목이죠. 불어에서는 로즈(rose)라고 하면 장미도 되지만 동시에 핑크의 뜻도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는 4대강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정치적 이야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팽목항에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로 계속적으로 관심이 가요. 내가 무엇을 했던가와 관계없이 내가 관심 가는 것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십년 전 이십년 전쯤에는 내가 해오던 맥락, 내가 공부해오던 것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작업을 못했었어요. 중구난방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하며 고민을 하던 차에 나 스스로 만든 답은, 예를 들면 바둑을 둔다고 치면 바둑 판 안에서 서로 치고 박고 하다가 이 쪽에서 게임이 잘 안 풀린다고 하면 저쪽에다 놓죠. 그리고 또 치고 박고 싸우죠. 이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 근거 없이 내가 내키는 대로 작업을 해도 10년 후에는 이들이 모이면 이렇게 해도 흥순명이고 저렇게 해도 흥순명이 되지 않을까. 그냥 너무 골머리 썩이지 말고 내키는 대로 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을 한 거예요. 어쨌든 정치적인 작업을 전혀 하지 않다가, 지금도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관심 있는 것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4대강을 소재로 삼았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4대강을 그리는 것이 저에게 내키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이 전시의 제목처럼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는데 알고 보니 뒤에는 응큼한 음모들이 숨어있는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여기의 한강은 녹조를 핑크색으로 바꾼 거예요. 밝은 미래를 떠들어대면서 '이러면 좋아질 것이다', '저렇게 하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알고 보니 '뒤에서는 이렇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에게는 김인선 큐레이터와 작년 12월 말까지 이런 저런 대화를 하면서 얻어낸 결과고 그로 인해서 새로 작업을 만들었고 1월 2월 파주의 추운 작업실에서 열심히 두 달 동안 이 작업들을 해낸 거예요. 이거 하나 빼고는 다 2017년도 작업입니다. 4대강외의 다른 사건들도 그렸는데 이 작업 같

은 경우, 터키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이 있더라고요. 건축사업 하면서 돈 떼어먹는 경우들의 심각한 문제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작품 <Bobby & John Grey>의 경우, 에든버러의 바비라고 하는 강아지 동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충견에 관한 이야기는 있죠. 일본에도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고 우리나라도 불이 나서 주인이 쓰러져 있는데 물에 자신의 몸을 적셔서 주인을 살렸다는 충실한 개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비 강아지는 주인이 죽고 나서 주인 묘에서 14년간 곁을 지키고 거기서 죽은 강아지에요. 그래서 강아지가 죽고 난 후에 충성심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이 동상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유명하지요. 그 동네에 놀러간 사람들은 꼭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사진 속에서 강아지를 안고 있는 저 주인이 죽은 다음에 14년 동안의 이야기인데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죠. 강아지는 그냥 동네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이라는 설이 가장 강력한데, 그냥 예쁘게 생긴 강아지한테 묘지기가 가끔씩 먹이를 던져 주니까 계속 묘지에 온 거예요. 그래서 개가 묘지에 사는 것처럼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기 주인이 죽고 난 다음에 묘지를 지키는 강아지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동네에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동네가 조금씩 부흥을 하기 시작해요. 그 소문이 퍼지니까 동물보호협회에서 기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 하겠다' 하면서 강아지에 대한 소문을 내고 그 강아지는 죽어요. 그런데 수입이 좋으니까 묘지주인과 그 앞에 있는 레스토랑의 주인이 비슷한 강아지를 또 데리고 와요. 이야기가 14년이 채워지고는 두 번째 강아지가 또 죽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하려니까 강아지의 수명이 있는데 계속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접고 거기다 동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이 이야기가 계속 되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1859년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죠.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책이 별 반응이 없었는데, 다윈이 에든버러에서 의학을 공부를 합니다. 의학 공부를 한 다음에 런던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학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에든버러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의 기원'의 책을 낸 바로 그 때가 바로 그 강아지 사건이 있었던 때 거든요. 그래서 이 강아지 이야기를 듣고 다윈이 그것을 이용해서 진화의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는 충성심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이 먹혀들어가요. 그래서 다윈을 추종하는 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퍼트리는데 거죠. 그러면서 저 이야기가 세계적인 이야기가 되요. 그리고 나서 종의 기원이 히트를 쳐요. 저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굉장히 웃긴 이야기가 얽혀있는 거죠. 강아지에 관한 이야기가 거짓말이든 아니든 누가 그렇게 그걸 가지고 캐물으면서 진실을 아냐고 따지겠어요. 강아지 다 예쁜데 예쁘니까 넘어가도 되는 거죠. 이게 가짜지만 얘기가 아름다우니까 얼마든지 좋잖아 하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무엇인가를 던져놓고 그 이야기 자체가 나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반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을 머리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써먹는다는 거죠. 나는 요즘 들어 여성문제, 성폭력 문제들이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었어요. 여성문제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공감해요. 저는 강력한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확실히 공감

을 해요. 그것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분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의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이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과 러시아의 로켓전쟁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보고 있어요. 진짜 아폴로가 달에 가긴 간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 사진을 저는 막연하게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발자국이나 깃발 같은 이야기들을 증거로 반박들을 하지만 저는 달에 갔다 온지 50년이 넘었는데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쯤 빌딩하나 지었어야해, 계속 안 가는 거면 처음부터 안 간 건가봐.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찾아보니깐 내용이 다른 각도에서 흥미롭게 보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미국인들은 로켓에는 관심이 없었고 미사일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1차 대전에 일본에서 원폭이 터지잖아요. 비행기가 실어서 떨어뜨렸는데 너무 위험한 방법이죠.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처음부터 빠르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미사일이 날라 와야 하는 거죠. 대기권을 통과하는 속도가 1초에 8km를 날려야 대기권을 통과할 수 있어요. 미사일과 같은 속도예요. 이게 맞물려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요즘은 이 이야기에 빠져있는데, 자신이 재미있어야 하잖아요. 나의 재미로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할 작업들인 거죠. 모든 작가들이 전시를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게 있겠죠. 이 전시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전시예요. 나에게 흥미진진함과 흥분을 주고 있고, 김인선 대표님과 대화를 하면서 또 다른 주제를 얻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점들에서 성공한 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객 : 빨간색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홍순명 :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속에 거짓말들이 숨어있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밝은 미래를 이야기 할 때 '장밋빛 미래'라고 부르죠. 이 사건이 있는 곳은 지금 현재 불안한 상황인데 이걸 기획한 사람들은 장밋빛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괴로운데, 이런 모습을 역설로 표현한 거고 십년 전에 <장밋빛 인생> 시리즈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다른 이야기와 다른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때는 스스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작은 시리즈를 200여개 그리다가 멈췄었어요. 제가 시작을 하면 좀 오랫동안 많이 해요. 조그마한 시리즈를 3000개 정도를 그렸어요. 핑크빛 물감을 많이 사봤는데 조금 하다가 말아가지고 언젠가는 써먹어야 할 텐데 너무 아까운거예요. 제 <사이드 스케이프>에는 핑크빛이 전혀 없거든요. 회색 혹은 청회색 톤이 많아서 이 색깔 물감을 쓸 곳이 전혀 없어서 10여 년 동안 썩혀져 있는데 쓰지 않고는 못 있겠더라고요. 이시리즈의 탄생에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아마도 더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사지 않을까 생각해요.

관객 : 그림을 왜 굳이 조각조각 내서 따로 그렸나요?

홍순명 :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가지고 있는 내 식대로의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4대강 사진 자료를 어디서 구해오고 포토샵으로 보정도 하고 스케치도 하고 그리기 시작해요. 밑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형태가 없어지기를 바래요. 저의 방식이죠. 그때부터는 강아지나 사람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그리파를 많이 그려서 그런지 그리기만 하면 형태를 그리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놓고 그리는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 그려요. 그 형태가 없는 거죠. 두 그림 다 이곳에 설치하고 나서 붙어 있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작업실에 이만한 크기의 벽도 없고 말이죠. 일부러 따로 그리기 위해서 이 것 그리다가 저 것 그리다가 하기도 하고요. 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방식이 조금 힘든 이유가 물감 색을 바꾸는 것은 많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색들을 그려나가죠. 같은 색 부분을 그리다가 다 그리면 다른 색 부분을 그리고, 그 결과물이 트럭 같지 않고 강아지 같지 않은 것에 저는 관심 없어요. 하나가 제 눈앞에서 드러났을 때 터치감, 분위기, 브러쉬의 속도감 이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 중요하고 그것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없이는 저는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형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안 맞는 부분들이 꽤 있죠. 이정도의 느낌은 제 데생능력으로 정확히 맞힐 줄 알았는데 그려놓고 보니 빼둔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어떤 형태를 묘사하고 싶지 않아서 큰 붓을 써요. 붓질을 하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것과 붓질을 하는 건 다르죠. 저에겐 붓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붓을 두고 큰 붓질, 작은 붓질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모여서 하나의 그림이 되고 그 안에 강도 있고 트럭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식의 그림 그리는 방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터치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저에게 그림의 실패와 성공은 투명도예요. 그 투명함을 직접 비춰지는 투명함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림이 숨을 쉬어야 해요. 숨 쉴 구멍이 없으면 저에게는 실패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여러 겹을 그릴 수가 없어요. 여러 겹을 그리면 어느 순간 그림이 불투명해지면서 저에게는 숨구멍이 막혀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터치가 넓적한 붓이 속도감 있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숨구멍이 만들어지는 게 제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붓의 크기는 제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정

관객 : 그리는 주제보다 태도가 더 중요한가요?

홍순명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 그리기 직전까지는 제게 이런 종류의 사건 등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치스러운 지적 호기심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단풍을 그린다는지, 노을을 그린다는지 하는 것엔 만족도가 생기지 않고 말하고 싶은 주제를 찾아 나서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스케치가 끝나는 순간 그 주제는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저에게서 사라져요. 완성이 되고 나면 다시 그 주제와 맞물려 하나의 작업이 완성이 되겠죠. 한

작품은 이론과 실기가 만나면서 생기는 건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만들어 는가'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죠. 그림을 그리는 순간은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와 완전히 차단된다는 거죠. 일부러라도 끊어 버리죠. 완성이 된 이후에는 저는 지나간 그림에는 관심이 없어요. 현재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것 혹은 내일 그릴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작품을 자기 자식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기 전까지는 주제가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작가인가, 무엇을 그리고 만드는 작가인가 하는 의미가 중요해서 공부를 하지만 그림을 시작하는 순간 그것들 에 관심을 버리고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평가는 또 내 몫이 아니기 때문에 끝난 것에 관심이 없고 저는 그런 작가예요.

관객 : 만약에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주제가 위협을 받는다거나 물성이나 조각 그림에 집중하다가 원래의 스토리가 바뀐다거나 할 때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홍순명 : 그리는 과정에서 신경을 안 쓴다고 해서 주제에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김인선 : 제가 작가님과 대화하는 동안 초반에 헛갈려 했던 것이, 작가님은 이런 저런 사회적 사건에 관심이 있고 요즘 항상 나가시는 촛불 집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번 전시에서는 선생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사건들을 캔버스에 담는 작업을 하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싫어요.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경찰, 법조인들을 만나 사건에 대해 캐묻고 알아보고 물어보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걸 하시겠어요?" 했더니 본인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이미지화 하겠다는 단계까지 가실 때까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세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이게 뭔지 확실해지면 그림을 그리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화면으로 옮길 때에는 이미지일 뿐 사건을 드러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미지 자체를 그리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내가 무슨 발언을 하거나 표현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그려야겠다' 하는 과정까지의 동기부여에 필요한 것이 '사건'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페인팅에만 접근 하는구나 라고 나름 이해를 했어요.

홍순명 : 그런 거죠. 처음 시작할 때에는 내가 왜 시작했는지가 나 스스로에게 설득되지 않으면 못해요. 사실 그게 가장 힘든 과정이죠. 주제가 논리적이지 않거나 하면 제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마음대로 그리죠. 그때는 우주의 중심이 저죠.

정연두 : 작품을 설명하는 것과 딱 들어맞는 작품들이예요.

홍순명 : 이것도 문제인 건 대체로 훌륭한 작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천재거나 무지 열심히 하거나. 제가 천재가 아닌 것은 판명이 난 것 같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 혹은 콤플렉스가 그거죠. 지 마음대로 하는 천재들을 흉내 낼 수 없는 거죠. 흉내를 내면 어색하고. 매일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죠. 그런 것들이 부러운 시절을 넘겼다고나 할까 저는 그걸 평생 힘들어 했었어요. 사람이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겠죠. 10년 20년 전부터 미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부터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해왔었어요. 그 성실이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순간 성실함이 없어도 뭔가 반짝거림이 있어야 하는데, 나에겐 그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내 주변을 둘러다봐도 천재가 별로 없어요. 천재가 많으면 천재가 아닌 거죠. 천재의 조건은 희소성이죠. 나의 좋은 면을 찾아보자 하면서 한 우물을 파는 거죠. 요즘 들어 나이를 들고 있다는 느낌을 살짝 받는 게 조금 뻘뻘해졌어요. 어떠한 질문에 답변이 안 나와도 그냥 해버려요. 이건 아까의 천재성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것이고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던 것에서 조금 틀이 넓어진 거죠. 허용할 수 있었던 한계가 조금 넓어진 느낌이죠. 내년이면 저도 60대가 되는데 누군가가 예전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전 지금이 정말 훨씬 좋아요. 하나 딱 한 가지 체력이 조금 빠고는.. 말하다가 보니깐 체력이 큰 것이기도 하네요. 3년 전에 포장해서 어딘가에 두었는데 다시 꺼내려고 하니깐 못 드는 거죠. 틀림없이 내가 넣었는데.. 이런 게 느껴질 때 조금 괴롭긴 한데 딱 이것 뿐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지금 현재가 더 좋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처럼 쉽게 뻘뻘해질 수 있는 것. 나 혼자서의 틀에서 괴로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가끔씩 나에게 보이면서 나이를 먹은 걸 느끼기도 하면서 동시에 참 좋아요.

정연두 : 이 작품을 왜 그렸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도 작품이 다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마 선생님이 과정상에서 잊어버렸지만 전시가 되면서 얻어지는 부분이 아닐까요.

홍순명 : 그런 부분을 약간 노리고 있는 것이 조각내서 그럴 때 연결 장면을 옆에 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 생기는 오차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주고 있지 않을까 하며 기대를 하죠. 사실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씩 큰 그림을 한 장씩 그리다보면 지금 이렇게 끊어지고 있는 힘이 없는 경우가 되게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나 저런 면에서나 이 방식을 되게 좋아해요. 특히 운송이나 보관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한 장에 그렸으면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저는 박스 3개면 이것이 다 들어가요. 제 작업실이 그렇게 작진 않은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거기서만 그리거든요. 거기서는 이것을 그릴 수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 만에 그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조각조각 되어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정연두 선생님이 저만의 감추고 있는 비장의 소스를 말씀 하신 거예요. 한 개, 한 개 따로 그리면서 생기는 오차의 힘이 굉장히 커요. 그 부분

때문에 따로따로 해서 그려놓고 따로따로 그려서 도저히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세계를 맛보는 거죠. 그 부분도 제가 즐기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김인선 : 그러면 저번에 독일에서 개인전 하시면서 오프닝 날 사람들이 마음대로 걸도록 하셨잖아요. 쪼개지는 그림인데 순서와 상관없이 걸게 해서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오게 만드는 것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사건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더 극대화 한 것인가요?

홍순명 : 그건 잘 모르겠고요.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제가 작년 여름에 개인전을 했을 때, 이백 몇 개가 하나가 되는 작품을 했어요. 길이가 20m 가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세월호 사건에 대한 그림이었어요. 그림 7개로 구성되었어요. 예를 들면, 12개가 하나의 그림이 되고 30개가 하나의 그림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7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세월호 사건을 보고 7개의 사건을 그렸는데, 그 이미지 7개가 무엇이나면 하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미는 사진들, 하나는 한겨레에서 많이 미는 사진들, 하나는 내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적절하게 이미지를 뽑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다 합하면 200개의 피스가 있었는데, 오프닝 날 그날 오는 분들한테 이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지금 한국에 이리이러한 상황이 낫는데, 그 사건들에 대해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7개의 정확한 이미지가 있으나 너희가 마음대로 걸어다오. 이것이 뒤죽박죽 되어있는 그 상황을 연출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날 사람들이 보고 마음대로 걸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그림을 맞춰서 걸기도 하고 높은 데에 걸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약 30분 동안 재미있는 퍼포먼스가 만들어졌어요. 포장 뜯은 걸 쌓았더니 하얀 무덤이 되고, 그림은 걸리니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참 묘한 것이 그날 모여 있던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상황처럼 뒤죽박죽되어 있는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는 이런 상황을 상징하기 위해서 걸었어요. 지금 저는 페인터예요. 조각가, 사진가 등등 조금씩 있겠지만 70~80% 정도는 페인터예요.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힘들지 않은데 젊은 시절은 정말 힘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30대에는 작가로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왔던 것이 마흔 살 때까지 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조금씩 나아지고 지금은 힘든지 아닌지 몰라서 무뎌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즐거움이 꼭 있어야 해요. 제가 평생 상업 갤러리에서 두 번 전시를 했는데요. 한번은 갤러리 현대에서 1999년도에 개인전을 했어요. 제가 쌈지 프로그램의 작가였고 그 때는 쌈지 프로그램이 끝나면 한명을 뽑아서 개인전을 했어요. 그 때 제가 뽑혀서 개인전을 하게 되었는데 쌈지가 갤러리를 빌려서 한 전시였어요. 또 하나는 세오갤러리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4년-5년 일을 해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팔아본 적이 많이 않아요.

관객 : 지난번에 <사이드 스케이프>에서 했던 전시는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봤는데, 그 때

는 청회색이었죠. 지금은 장밋빛이라고 해서 분홍빛을 많이 봤어요. 아직까지는 청회색의 시대인데 장밋빛으로 바꾼 걸 보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색깔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객 : 이 작품을 판매를 하실 때 작품을 하나하나 파시나요? 아니면 전체를 파시나요?

홍순명 : 누가 산다고 하면 팔죠 전. 한번 팔면 새로 그리면 되죠.(웃음) 전체를 팔아본 적이 없지만 하나하나도 팔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누가 산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팔 거예요. 판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곧 생기겠죠.

관객 : 아까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하나가 작가님에게는 똑같은 그림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설치하실 때는 다리가 기둥에 걸쳐져 있다거나 세트여야 하는데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이어서 빠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안에서는 다리라던가 귀퉁이라던가 하는 위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감상자가 볼 때 하나의 전체 화면 안에서 다리, 물결, 그림자 이런 하나의 이미지가 물리적으로 맞는 게 중요한지?

홍순명 : 저의 배려죠. 전시는 결국 제가 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친절을 베푸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착각일 수도 있으나 그런 배려로 하는 행동이겠죠. 어떤 경우에 어떤 것을 빼서 올렸다고 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옆에 것이 더 중요하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 식대로 판단을 해서 어쨌거나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강이고 다리를 그린 것이긴 한데 그것이 빠지면 이야기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이 그림 안에서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전시라는 것은 일단 남하고의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만을 위한 전시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죠. 그 인간이 강력한 왜곡이 있어도 혼자서 살겠어요? 칭찬도 좀 들으면서 에너지를 받아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 그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전시 할 때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번 전시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지만 다른 것을 시작할 때도 내가 무엇을 걸까 어떤 것을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내 머릿속에 두세명을 뽑게 되어요. 어떨 때는 한명.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한 전시를 해요. 그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다빈치거나 니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봐야지 라는 소통을 만들기도 하죠. 그렇게 전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전시를 해 놓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는 거죠. 거기서 또 답을 얻어내기도 하고 어쨌든 전시는 혼자만 좋을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서 오는 게 아닐까요? 그냥 남들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거야 하는 판단이겠죠.

관객 : 핑크빛이 너무 이뻐요.

홍순명 : 제가 핑크색을 십년 전에 조금 써보고 본격적으로 처음 써보는데 이것이 나한테 맞는 색이 있거든요. 제가 청회색을 그릴 적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잘 다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황색, 노란색은 진짜 못했던 것이 이 색을 다루면서 화면이 점점 더러워져요. 그런데 핑크색과 빨간색 다루면서 너무 좋았어요. 뜻밖에 쉽게 다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붉은 계통이 노란색, 주황색처럼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힘들지 않았었어요. 참 묘한 게 쉽게 그려진 그림들이 결과가 잘 나오는 것 같았어요. 노력형 그림들은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보시다시피 그림이 얇아서 물감이 거의 안 들어가요. 캔버스가 심각해요. 별이도 없는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인성 미술상을 받았는데 상금이 무려 5천만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뜻한 겨울을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캔버스를 구입했어요. 오래 그리는 것보다 빨리 그리는 게 더 나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을 쉬는 듯한 느낌들. 제가 생각 할 때는 회화는 많이 해야 해요. 정말 쌓이고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회화에요. 서예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서예를 하셔서 옆에 앉아서 보면 계속 쓰고 보고 성공, 실패 딱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없이 백 개 정도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그런 방식과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객 : 저는 동양화를 전공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부분들이 동양화의 방법과 일치한다고 생각했는데 서예에 대한 연관성, 영향을 받은 것을 들으니까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빨리 그릴수록 작업이 더 좋거든요. 흔히 보편적으로 말하는 작업의 완성도와 속도를 분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업의 시간이나 노동의 시간과 비례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작업을 평가를 할 때, 작품 소요시간을 물을 때 애매하게 이야기했을 때 갤러리스트가 너무 싫어하며 이렇게 하면 작품 절대 안 산다더군요. 그런데 사실 빠른 속도감이 제 작업의 중심이거든요. 그런 작업을 추구 하는 게 본질과 맞는데 상업적인 마인드가 본질과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가려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명 : 그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은 없는데 그림을 볼 줄 모르니까 작가가 그림에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보험을 걸죠. 그리고 그림을 좋아하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수준의 사람들과는 굳이 이야기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어쨌거나 저는 저의 방식에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있어요. 올해 들어서 하고 있는 다른 시리즈가 있는데 큰 그림을 두 개를 그리는 것이 있는데 인물화를 그리고 있어요. 그 인물화가 어머니 사진과 저의 사진을 합성을 해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저와 어머니의 사이가 어릴 때부터 아주 안 좋아요. 말도 안 듣고 그러다가 정확히 99년도 12월 31일 밀레니엄을 맞이하겠답시고 부산에 내려가서 저녁시간에 잠깐 같이 보내다가 또 대판 싸우고 화가 나서 차를 타고 서울로 와버렸는데 그것이 밤 여덟시였어요. 그날

부산사람들이 포암산에서 해 뜨는 것을 본다고 모든 사람이 경부선을 타고 가서 차가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2시 땡할 때 제가 경주 옆을 지나갔어요. 한 네 시간 동안 경주 옆을 지나갔던 것이 머릿속에 생생하고 이것이 2000년도로 넘어가는 밤이니까 17년 전이에요. 그 이후로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안했어요. 그리고 살다가 최근에 어떤 계기로 사이가 아주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대화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제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지 닮아서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32년생이신 어머니가 그 나이 많은 분이 젊었을 때 5개 국어를 했어요. 공무원 시험을 쳐서 1등까지 했어요. 또 주식에서 귀재가 되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물론 다 날렸지만 그런 분이예요. 제가 그렇게 막 되먹은 놈은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울까라고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근대사와 현대사가 어떻게 대립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결과를 얻어낼지는 모르겠으나 어머니의 얼굴과 나의 얼굴을 합성을 하면서 300호 크기로 그리고 있어요. 화면에 비구상 부분이 많죠. 그런 부분을 내가 어떤 터치를 쓰고 어떤 색깔을 쓰고 어떤 느낌으로 그려나가면서 그 근대와 현대의 갈등을 표현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인물화를 시작을 했는데 몇몇 분들이 보시고는 반응이 좋지 않아요. 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작업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작업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어머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십 몇 년 전에 그림이라는 것에 빠져들면서 인물화, 정물화가 보통 페인팅의 기본이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다 해보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 풍경화를 시작했죠. 왜냐하면 정물화부터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인물화는 너무 어려운 것이 아무리 그려도 하나도 안 닳은 거예요. 아 이걸 나중에 해야 겠다 하고 풍경화를 했죠. 산을 그려도 아무도 형태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아서 대충 그려도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 내가 말씀드린 형태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붓놀림에 집중을 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풍경화에 점점 빠져들었고 10년 동안 그랬는데 우연한 기회에 세월호의 조각들을 만들어 놓고 아 이것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렸고 인물화는 못하고 있다가 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지면서 어머니한테 사진을 보여 달라고 했죠. 사진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던 중에 어머니도 처음으로 나와 대화를 한다는 것이 기분이 좋으셨는지 돈은 어떻게 벌었는지 등등을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셨어요. 일제시대, 6.25를 겪으셨기 때문에 다 굴곡이 심하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 사신 분이데 여자는 진짜 돈 많을 때 너무 예쁘고 돈 없을 때에는 시골할머니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미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돈 엄청 벌었을 때 예쁘구나, 여자는 돈이 있어야 예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사진을 가져와서 내 사진과 합성을 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재미없으면 못해요. 그 과정에 흥미를 느끼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어요. 소련과 미국 경쟁도 너무 재밌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뽑아서 이미지로 할 거고 9월 달에 개인전이 있어요. 그곳은 굉장히 크고 천장도 높아서 큰 회화들로 해서 한 15m 정도 해서 그림들을 그릴 생각이예요. 어떤

소재로 해야지 이런 상상으로 굉장히 즐거워하는 중이에요.

관객 : 아까 작가님이 작품을 대하는 태도가 객관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작품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변한 거 같으세요. 그것에 대한 계기가 있는지?

홍순명 :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와의 관계는 늘 저에게 숙제였어요. 그런데 작가로서 작품으로 어떻게든 투닥거리를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기뻐요. 하지만 그 기쁨만 있다면 작가의 일관된 작품세계에서 약간 빠딱한 것 아냐? 줄기가 따로 가는 것 아냐? 라는 말들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하고 싶은 기준이 뭐냐면 나에게 어떤 이론적 불편함이 없다면 그냥 하는 거죠.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관객 :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작가가 작품을 대하는 태도에서 작품이 결정되는데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뻔뻔함이 언제쯤 오는지...

홍순명 : 작품을 한답시고 편한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거든요. 작품을 완성해 놓고 누군가 보고 이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언변이 좋은 대답을 얘기해 주는 것,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설득력이 있고 현대의 미학과 철학과 잘 맞아 떨어져서 지식과 공부를 한 사람이 적절하게 만들어 낸 작품이라는 걸 느끼게 해줌으로써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그게 저는 싫어요. 하지만 보통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쉽게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죠. 정연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것 말고도 많거든요. 어쩌면 그것 말고 그 다음에 있는 거기서 진짜 예술이 있을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느낌으로만 서로 소통을 해야 해요. 근데 그 느낌이라는 건 객관적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의심 같은 게 생기죠. 우리같이 전반적으로 비리가 많은 나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생각하고 유명한 사람이 좋은데 라고 말하면 나도 좋아 보인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남들이 잘 모르겠다 라고 할 때 나는 좋아 보이는데 라는 정도까지는 이유 설명 없고 근거 없이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허용해줘야, 그 허용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차단해 버리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이런 법칙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약간 자신감이 붙은 거죠. 작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김달진 선생님이 좀 전에 나가셔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웃음) 자꾸 나이 얘기해서 민망하지만,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어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그것이 기쁨을 주고 있고 용기를 주고 있고 실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자기 작업에 대해서 아직 객관적인 혹은 외부에서 칭찬을 못 받은 사람도 근거 없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면 시행착오는 있을지 언정 좋아질 거라 믿어요.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예술계 안에서는 퍼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경제나 다른 부분을 하는 분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 안 좋겠죠.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어도 되는 분야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는 아니야 라고 치고 박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건강한 토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작용은 많겠지만 그래도 너무 움츠리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조금 쭈뼛쭈뼛하고 있어요. 5명의 시원찮은 작가가 있고 5명의 좋은 작가가 있으면 좋은 작가들은 다 자신감 없이 있고 나머지 시원찮은 작가들이 다 해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회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설치보자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정리가 되겠죠? 여하튼 저는 평가에 별로 겁나지 않아요. 작가를 하던 미국의 친구한테 들은 건데, 작가에게 포기란 DNA가 없는 인간이래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작가로 평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합리적인 사고로는 작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남 얘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내 위주로 생각을 해야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말하는 자리에서는 민망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건강한 것 아닐까요. 자기비판을 계속 하는 것은 사춘기때나 20대 초반에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대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